국내
마감시황

2026.3.10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과도한 우려 완화되며 반등

트럼프, 이란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시사
국제유가 하락,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532.59pt (+5.35%)	1,137.68pt (+3.21%)	823.02pt (+6.15%)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67.50 원 (-6.2 원)	3.6460% (-9.3bp)	6,804.50pt (+0.05%)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18,334 억	+41 억	+2,729 억
외국인	+11,039 억	-4,005 억	-6,784 억
기관	+8,471 억	+4,286 억	+4,185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완화되며 반등했습니다.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곧 종식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G7 국가들이 비축유 방출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했고, 주요 아시아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공격이 이어지면서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라 장중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KOSPI는 5.35%, KOSDAQ은 3.21%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8.4조원, KOSDAQ은 약 15.0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약 1.1조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KOSPI를 8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제약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란 전쟁 이후 하락폭이 컸던 반도체주가 반등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원전주가 상승했습니다. 그 외, 자동차, 전력기기,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반락으로 정유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조기 종전 가능성을 반영하며 방산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12.20%), 삼성전자(+8.30%), 두산에너빌리티(+6.55%)가 올랐고, S-Oil(-8.39%), LIG넥스원(-4.65%), 삼성중공업(-2.45%)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